

중국의 문화산업 규제와 한한령*

이건웅**

■ 목차

1. 머리말
2. 중국의 해외국가 문화·통상 규제
3. 중국의 문화산업 규제
4. 맺음말

【국문요약】

한한령 이전과 이후 한중 문화산업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사드로 촉발된 한한령은 한중 양국에 반성과 자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본 연구는 한한령을 계기로 중국 문화산업의 규제를 공식적으로 분석했다. 현재를 중심으로 한한령 이전에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었는지, 또한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한한령 이전과 이후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과 규제 방안의 흐름과 방향을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 전반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문화상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자국의 문화산업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방점이 있다. 이러한 기조는 비단 문화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국가 정책이며 방향성이다.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와 2018년 3월 양회에서 드러났듯이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척결을 통해 내부를 단속하고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해 강한 중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신문·출판은 중앙선전부에 통합하는 언론미디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 기반으로 한 ICT 분야는 <인터넷안전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중국은 사드를 계기로 한국 문화산업의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한반도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한령을 계기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문화산업의 본질을 파악하여 내구력을 키워나가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한한령의 교훈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1월 문화콘텐츠 신진연구자 포럼의 발표문을 수정한 연구임.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논문접수일(2018년 3월 25일), 수정일(2018년 4월 18일), 게재확정일(2018년 4월 20일)

주제어 : 한한령(限韓令), 문화산업, 중국위협론, IP산업, 인터넷안전법

1. 머리말

2016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이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올랐고,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제조 2025’를 핵심정책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일대일로, 안으로는 승안신구 개발 프로젝트를 계기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다만 이들 핵심정책과 프로젝트에서 문화산업은 한발 떨어져 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5년을 마감하고 새롭게 2기를 맞이하고 있다. 시진핑은 주요 고위급 인사를 대거 교체하고 1인 집권체제를 강화해 반부패 투쟁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속성장 ‘창의’와 ‘자율’이 중요하지만, 중국에는 자유로운 창의력은 제한된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외 모든 문화기업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해외 기업은 해외 기업에 맞는 규제를 하고 중국 기업은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규제조치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후 중국은 제일 먼저 문화산업에 보복을 감행했다. 중국 단체관 광객을 규제했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연예인의 출현과 제작 등 점진적으로 규제에 나섰다. 한국이 사드와 안보에 강경하면 할수록 제재와 규제의 강도와 범위도 넓어졌고, 한국은 마땅한 출구전략이나 해안을 찾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한령 이전과 이후 한국 문화산업 규제’와 ‘한한령 이전과 이후의 중국 문화산업 규제’라는 두 개의 연구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중국과 다른 해외 국가의 문화·통상 규제 사례, 중국의 문화산업 규제를 순차적으로 다룬다.

연구문제 1. 한한령 이전과 이후 한국 문화산업 규제

중국 정부는 ‘문화안보관’에 따라 중국 내 한류 콘텐츠 확산의 주요 계기마다 규제를 신설·강화했다. 한한령 이전이었던 2014년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를 끌자 온라인동영상플랫폼에도 사전 심의제도를 강화했고, 사드 이후인 2016년 <태양의 후예>가 성공하자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와 방영 시간대 규제 등을 강화했다.

연구문제 2. 한한령 이전과 이후 중국 문화산업 규제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의 규제는 국내외가 따로 구분이 없다.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얼

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최근 <영화촉진법>과 <인터넷안전법> 등 강력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는 같은 연정선상에 있다.

위의 연구주제를 전제로 중국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노르웨이, 프랑스와 같은 주변 해외 국가와 문화·경제보복 조치를 어떻게 전개되고 문제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분석한다. 국가마다 원인과 진행과정은 물론 대처방법이 다른데 이들 해외 사례는 한국 문화산업 경제 보복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학술논문, 보고서, 관련 뉴스 등을 기초 자료로 분석하며, 결론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산업의 규제 원인, 전개 방식, 결론과 방안 등을 도출한다. 그리고 중국 문화산업의 규제와 한한령의 문제를 짚어 보고, 문화산업에서 출구전략과 제2의 사드 등 중국 리스크 대비 등을 모색해 본다.

2. 중국의 해외국가 문화·통상 규제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남중국해 등 육지는 물론 해상까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주변 국가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몽과 중화사상의 부활이 국가의 어젠다가 되었고, 일대일로를 국가전략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확장 정책은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고 원인과 진행과정은 물론 대처방법까지 다르다. 세계 각국은 중국과 통상마찰을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 살펴보면 중국의 한한령 관련 해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1) 일본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은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과 중국은 오랜 역사의 반목으로 점철되었는데, 2010년과 2012년 벌어진 영토문제와 이에 따른 문화·통상 갈등은 좋은 사례다. 주요 발생 원인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漁島)를 두고 일어난 영토분쟁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문화·경제적인 통상 제재를 발동하고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우선 단체관광객의 일본 관광을 금지하고,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했다. 일본은 2009년 기준 중국 희토류 수입 비중이 85%가 넘는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다.

일본의 대응도 신속하고 정확했다. 희토류 제한으로 인해 일본 산업에 미칠 과급효과를 고려해 중국 선장을 풀어주고 중국 정부에 재발방지 등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일본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문

게 아니라 중장기 대안으로 대체품을 개발하고 희토류 공급선을 다른 국가로 변경했으며, 호주와 미국,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도출해 냈다.¹⁾ 실제로 일본의 희토류 자원탐사 개발 시도와 베트남에 공동연구개발센터 개설 등 자구책은 큰 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2010년 85%였던 중국 희토류 수입의존도는 2015년 53%까지 하락했다.

일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미국, EU와 함께 중국이 시도한 ‘자원의 무기화’를 근거로 WTO에 정식 제소해 2014년 8월, 중국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때 중국은 큰 타격을 받고 참된 교훈을 얻는다. 대일본 통상제재를 할 때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눈앞에 승리에 도취해 있는 동안 일본은 뒤로 대비책과 역공을 한 셈이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3섬을 국유화하면서 다시 한번 영토분쟁이 발생한다. 자신감을 얻은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 내 3개 섬(우오즈리섬, 기타코섬, 미나미코섬)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국유화한다.²⁾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한다. 하지만 이전과는 양상이 달랐다. 중국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여론전을 펼쳤다. 흥분한 인민들은 100여 개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일본인 폭행과 일본 차량이나 시설물 훼손 등 폭력 시위로 확대되었다. 일본에 있는 기업의 손실은 1억 달러에 달했고, 일본 자동차 도요타와 혼다는 직격탄을 받아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도 67억 5,800만 달러로 감소해 한국에 추월당했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영향으로 중국의 일본 관광은 크게 위축되었는데, 2012년 영토분쟁은 쇄기를 막아 일본 관광업계는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2010년 때와 달리 2012년 영토분쟁 때는 일본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일본은 2013년 7월, 동남아시아 5개 국가에 관광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광 정책을 완화하고, 중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중동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³⁾ 일본과 중국은 지금도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강력한 경제통상 제재를 계기로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 측면도 있다.

2) 베트남

베트남과 중국 영토 분쟁의 역사도 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양국은 육상국경 획정 조약을 맺고 2008년 국경을 확정했다. 반면에 해상 국경은 잡음이 크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진출 계획이 포괄적이고 영토뿐만 아니라 지하자원까지 연계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

1) 「일본, 해외시장 개척과 WTO 제소 통해 중국 패소 이끌어 내」, 『산업일보』, 2017년 3월 14일자.

2) 「정상회담 속도 냈던 韓, 中 협상술에 말했다」, 『시사저널』, 2017년 12월 18일자.

3) 「센카쿠 국유화 반일감정 확산, 수출 감소·여우커 급감」, 『산업일보』, 2017년 3월 19일자.

이다. 특히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와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 베트남명 황사군도)의 영유권 문제가 민감하다. 스프래틀리 제도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중국, 필리핀이 영토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1974년 중국과 베트남 해군이 국지전을 벌여 중국이 승리해 파라셀 제도는 현재 중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2011년 파라셀 제도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을 향해 중국 해군이 사격을 가해 갈등이 다시 촉발했다. 또한, 2014년 중국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西沙群島) 인근에 석유시추 설치를 강행해 베트남은 자국 영토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⁴⁾ 동시에 베트남과 중국 선박이 충돌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갈등이 폭발하게 된다. 베트남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중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위 및 폭동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⁵⁾ 베트남 국외의 있는 국민까지 반중국 시위에 가담했고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 4명이 사망하고 12개의 공장이 불타고 6만여 명이 실직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⁶⁾

중국은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 제재를 하자 베트남의 소작농이 직격탄을 맞았다. 피해 규모는 약 932만 달러로 추정하며, 주요 농산물은 과일, 채소, 쌀, 고무, 수산물, 동물용 사료 등이다. 베트남 관광객의 25%나 차지했던 중국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급감했다.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제재와 더불어 중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해져 베트남 관광은 극감했다. 2자리 수로 증가했던 관광객 수는 2015년 8.5%나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베트남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에 대한 안전보장과 배상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습했다. 사실 중국은 파라셀 제도같이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남중국해 작은 섬에서 고의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실효적인 지배와 명분을 축적해 나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폭력시위로 인해 베트남이 투자 부적격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⁷⁾

3) 필리핀

필리핀과 중국 역시 오랫동안 영토 분쟁을 겪어 왔다. 2009년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을 금지했고 2012년 필리핀에 여행경보를 발동하는 식의 방법으로 경제 보복을 진행했다.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2013년 1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다. 2016년 7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

4) 외교부,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 『베트남 개황』, 2011.

5) 2017년 삼성 디스플레이공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6) 「베트남, 무역·경제 분야 중국 의존도 줄어」, 『산업일보』, 2017년 3월 28일자.

7) 「베트남 사례로 배우는 통상 분쟁 대응법」,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년 5월 23일자.

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고, 필리핀은 리드뱅크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권리를 갖는다고 적시했다.

아퀴노(Aquino) 대통령(2010~2016)은 미국과 일본과 군사·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했다면 2016년 6월 부임한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에 나섰다. 하지만 2017년 5월 15일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서 석유 채굴을 강행할 것을 통보했고, 시진핑 주석을 즉각 반발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다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⁸⁾ 물론 필리핀도 전쟁 위협은 국제법 위반임을 들어 유엔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위협하지만, 실효적인 외교를 펼쳐 자국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10일 보아오포럼⁹⁾에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회동을 가졌으며, 두테르테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긴장을 조성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필요할 때만 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 말하면서 지금 필리핀은 협력자로서의 중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미국을 뒤에 안고 중국과 실리를 챙기는 투 트랙 전략으로 경제·통상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안보와 국방은 견제하는 전개를 전개하고 있다.¹⁰⁾

4) 프랑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민의 평화시위를 유혈 진압한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 한국에서도 성화 봉송 중 중국 유학생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정도이며,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그중 프랑스는 그 사태가 보다 심각했다. 프랑스 중국대사관의 취싱(曲星)은 프랑스의 유명 라디오와 대담에서 티베트 관련 망언으로 홍역을 치른다. 프랑스 총리까지 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중국 정부는 즉각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금은 결국 성화 봉송 폭력사태로 이어졌다.¹¹⁾ 성화가 꺼지거나 탈취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졌고, 여성 장애인 펜싱 선수인 진징(金晶)은 끝까지 성화를 지켜 중국 인민의 영웅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프랑스는 달라이 라마에게 프랑스 파리 시민권을 부여해 중국 인민의 반감을 크게 일으켰고, 이러

8) 「중국 “석유 채굴 강행 땀 전쟁” ... 필리핀 “전쟁 위협 유엔 제소」, 『중앙일보』, 2017.05.21.

9)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으로 매년 4월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충하이시(瓊海市) 보아오(博鳌)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국가의 지역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발족해 2002년 제1차 연차총회가 열렸다.

10) 「필리핀 두테르테, 미국과 동맹 거론하며 "사랑해요, 시진핑"」, 『연합뉴스』, 2018년 4월 10일자.

11) 「프랑스 중대사관 관리, 성화 봉송 앞두고 망언」, 『SOH희망지성』, 2008년 4월 3일자.

한 사태는 중국에 진출한 대형 유통채널 까르푸로 불똥이 튀었다. 중국 애국주의자는 까르푸 불매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베이징 중관촌의 까르푸를 폭발하겠다고 위협까지 일삼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 정부에 티베트 탄압 중단과 까르푸 사태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좀처럼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사그라지지 않았다.¹²⁾

그러나 이 사태는 2008년 5월 15일 발생한 ‘원촨(汶川)’ 대지진으로 급수습하게 된다. 베이징올림픽처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큰 재앙이 중국에 덮치자 프랑스 정부는 중국 비난을 멈추고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까르푸도 지진 재난지역에 300만 위안을 기부하고 현지 까르푸 재단을 통해 중국 유가족에 100만 유로를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지진구호 활동에 나섰다. 중국 정부도 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가 시급했고 까르푸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활동에 감명받아 사태 수습에 전향적 태도를 끌어낸 것이다. 중국과 프랑스는 역사나 영토문제 등 별다른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관계가 호전되었다. 중국 정부는 프랑스를 통해 투영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서구 사회가 얼마나 중국을 견제하고 불안감과 혐오감이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¹³⁾ 특히 서구사회는 인권문제에 민감하고 중국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다.

5) 노르웨이

마지막은 노르웨이에 대한 경제통상 보복 사례이다. 노벨위원회가 2010년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 작가인 류샤오보(劉曉波)를 선정하고 수상했다. 류샤오보는 국외 망명을 거부하고 중국에 남은 중국 국적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다. 중국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에 외교문제가 될 것을 강력히 항의했고, 행동으로 이어졌다. 차관회의 등 정부가 주관하는 회담을 전부 취소하고, 뮤지컬 <Sunny Night>의 공연을 취소하는 등 문화교류까지 단절했다. 또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제한하고 수입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했다. 2013년 노르웨이 정권이 바뀌면서 사태는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우선 노르웨이 정부가 먼저 노벨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6년 만에 외교가 정상화되었다. 노르웨이와 중국 간에 중단되었던 FTA 논의도 재개되었고, AIIB 창설멤버 가입 협력 등 경제 분야에 협력도 증가하게 되었다. 노르웨이는 프랑스와 달리 사과를 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었던 점에 차이점이 있다. 중국도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에 진출하는 방향을 모색 중인데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이다. 노르웨이는 현재 이 북극항로 항공 운송권을 지렛대로 실리를 챙기고 있다.

12) 「프랑스계 대형마트 까르푸 겨냥한 불매 운동 발발」, 『산업일보』, 2017년 3월 23일자.

13) 「중국과 오래된 미래 2. 헬싱키의 함정」, 『슬로우뉴스』, 2017년 12월 11일자.

[표 1] 주요 국가와 중국의 통상 분쟁

국가	주요 원인	통상 규제	대처방안
일본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	- 단체관광객의 일본 관광을 금지 -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 - 대규모 반일 폭력시위	- 대체품 개발하고 공급선 변경 - WTO에 정식 제소 - 호주와 미국,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 개척
필리핀	남중국해 영토 분쟁	- 바나나 수입을 금지 - 여행경보를 발동 - 중국은 전시상태	-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
베트남	국경 영토 분쟁	-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 제재 조치 - 중국 단체 여행객 취소 - 프로젝트 입찰 제한	- 중국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위 및 폭동 - 한국 등으로 공급처 변경 등 시장의 다각화
노르웨이	2010년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	- 차관회의 등 주요 국가회의의 취소 - 연어 수입 규제 - 뮤지컬 <Sunny Night> 공연 취소 - FTA 협상 취소	-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사과 - 1927년작 중국 무성영화 반환
프랑스	티베트 문제(달라이 라마)	- 대형마트 까르푸 불매 운동	- 원환(汶川) 대지진 기부 - 특사 2명을 파견

위의 [표 1]을 보면, 일본, 베트남, 필리핀,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는 일련의 패턴과 중국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나 안보, 외교나 무역통상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문제를 삼고 반격한다. 우선, 공통적인 방법은 여론전을 펼치고 단체관광객 금지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국가 마다 처한 상황을 고려해 압박과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별적으로 취한다. 예를 들면 일본은 희토류, 베트남은 농산물, 필리핀은 바나나, 노르웨이는 연어와 같이 주력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압박한다. 한국은 한류, 즉 문화산업이 주 타깃이었다.

필리핀과 노르웨이,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비로소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은 10년마다 정권이 바뀌어도 영토나 안보 등 국가 전략이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베트남을 제외한 민주국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또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국가 정책이 바뀐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는 등 국제정세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정부의 단일한 대응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갖고 왔는지 경험을 통해 배운 바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국가에 대응하는 메뉴얼은 명료하다. 안으로는 외환유출을 방지하고 해

외투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외자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이나 농업 어업은 장려하고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은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 에너지, 카지노 등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투자 금지와 압박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과 국교를 맺고 있는 22개국의 국가에 단체관광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관광 금지는 중국 정부가 제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효율적인 규제 방안이다. 2018년 첫날부터 태평양의 작은 섬 팔라우는 중국의 타이완 국교 단절을 거부했다. 중국의 타이완 고립화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2017년 파나마나 감비아 등 타이완과 국교를 단교하고 중국을 선택한 것과 대조적이다.¹⁴⁾ 팔라우의 이유 있는 반기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의 경제보복과 영토분쟁에 맞서 WTO에 제소해 승리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3. 중국의 문화산업 규제

사드로 촉발된 한한령이 한중 문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한령이 한중 문화산업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 의구점이 생긴다. 첫째, 한한령 이전에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었는가? 둘째,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 정부는 국내외 모든 문화산업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정책의 기획·제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에서 행하는 ‘문화제재’는 외래문화를 겨냥한 제한이다. 원래는 중국대륙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문화상품이 고급 서비스산업의 일종으로 핵심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나, 자국의 문화산업 또한 보호와 규제라는 양날의 칼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¹⁵⁾

중국 정부는 2018년 3월 <당과 국가기구개혁 심화 방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에 따라 1998년 개편 이후 20여년 만에 대규모 기구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에 중국 문화산업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했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폐지하고, 텔레비전 관리 업무를 기초로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광판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신설했다. 신문과 출판 업무는 중앙선전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문화부와 국가여행국은 폐지하고 문화여행부를 신설했다.¹⁶⁾ 시진핑 정부는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국가의 체계와 총

14) KOTRA, 「2018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 2017, pp.19~21.

15) 刘超杰, 「国际政治中的制裁研究」(박사학위논문), 中共中央党校, 2006. (손영풍·김익기, 「중국사회의 범(泛)정치화 현상과 ‘한한령」, 『문화콘텐츠연구』, 제10호, 2017, p.63에서 재인용)

16) 「中共中央印发‘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新华网』, 2018년 3월 21일자.

체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MCN, SNS 등 핫한 이슈는 모두 이곳에서 관리한다. 2016년 11월 중국 재정부는 문화관리기금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사(文化司)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구는 ‘문화 개혁 및 발전에 관련한 재정 정책 연구 및 지원’과 ‘재정부가 주도하는 중앙 문화 기업의 예산·자산·재무 관리’를 담당한다. 재정부는 2016년 1년 동안 문화산업 발전 자금으로 44억 2,000만 위안(약 7,516억 원)을 투자했다.¹⁷⁾

1) 한한령 이전에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었는가?

한한령의 핵심 타깃은 ‘한류’다. 한류는 중국 바링허우(80년대생)와 지우링허우(90년대생) 세대가 중심으로 유행하는 하나의 문화트렌드다. 중국 젊은이 사이에서 한류가 유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류가 국가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한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에는 “국가 이익에 앞선 문화 승배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한류는 일종의 소비품이지 대체 불가능한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문화상품이나 연예인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 관광지로서 한국도 마찬가지이다.¹⁸⁾ 한국의 예능 포맷을 수입하고 한국 연예인을 영화나 드라마,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중국 연예인이나 다른 해외 연예인보다 상대적으로 값싸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예인은 가격은 낮으나 효과와 호응은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여전히 효용성이 높은 문화상품이다.

한류에 대한 규제는 사드 이전부터 존재했다. 2014년 장태유 감독의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영해 대박이 터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 드라마가 되살아난 것이다. 이후 2014년 9월 2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인터넷에서 드라마를 방영할 때도 TV와 마찬가지로 심사·허가 절차를 밟게 하려고 <외국 영화 및 TV 드라마의 인터넷 방송 관리 규정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落实网上境外影视剧 管理有关规定的通知)>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 지식재산권 강화, 올바른 방향의 프로그램 제작, 법률과 시장 규칙 준수, 표절과 모방 등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등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이번 통지를 중국 정부의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외국 드라마의 한외령(限外令)이 가시화되는 전조라고 보았다.¹⁹⁾ 이 통지에는 4개의 원칙이 있는데, ① 수량의 제한, ② 콘텐츠의 확인, ③ 선심의 후방영, ④ 통일된 등기이

17) 이견웅, 「사드 이후의 한중 문화산업」, 『성균차이나브리프』, 제5권 제3호, 성균관중국연구소, 2017.

18) 손영풍·김익기, 앞의 글, p.64.

19) 「“限外令”下, 美剧应该怎么看?」, 『新京报网』, 2015년 1월 22일자.

며,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새로 방영하는 외국 드라마는 전량 심의를 거친 후 자막을 넣고 심사 필증을 받은 후 방영할 수 있게 되었다.²⁰⁾

<별에서 온 그대> 이후 KBS의 <프로듀사>(12부작)가 17%가 넘는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 수출되었다. 김수현이 출연한 <프로듀사(制作人)>는 바이두 계열사인 소우후에서 수입했고 3개월 동안 모든 사전 심의를 거쳐 방영했다. 매주 수요일 12:00에 방영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최고 664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프로듀사>는 편당 127만 위안이라는 매우 높은 비용으로 수출되었다. 2013년 이전까지 한국 드라마는 편당 4,000위안 이하에 수출되었다. 하지만 2013년 SBS의 <상속자들(继承者们)>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드라마의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상속자들>의 수출가는 편당 9만 위안 이었고, 2014년 SBS의 <별에서 온 그대(来自星星的你)>는 편당 18.5만 위안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후 방영된 SBS의 <피노키오(匹诺曹)>는 173만 위안까지 올랐다.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의 수입 비용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드라마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드라마 규제령’을 규정했고, 해외 드라마 중 한국 드라마를 타깃으로 만든 법령이었다. 실제로 이후 수출한 SBS의 <하이드, 지킬, 나(海德、哲基尔和我)>²¹⁾는 최초 191만 위안으로 논의되었으나, 이 조치로 인해 63.6만 위안으로 조정해 수출했다.²²⁾

중국 제작사는 한국 방송제작사와 손잡고 이 조치를 정면대결하기 위해 공동 제작과 동시 방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렇게 해서 제작한 드라마가 이영애의 복귀작 <신사임당(师任堂)>과 송혜교의 신작 <태양의 후예(太阳的后裔)>이었다. 하지만 두 드라마의 운명은 달랐다. 2016년 먼저 방영한 <태양의 후예>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김수현에 이어 송중기가 새로운 한류 스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2016년 6월 20일 <방송 프로그램 자주적 창작 업무 추진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를 발표해 해외 업체와 협력하거나 외국인인 주 제작자인 프로그램도 해외 저작권 포맷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통지는 중국 정부가 중국 제작사와 한국 제작사가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이다. 이 통지가 사드 이전에 시행한 지침으로 한한령과 무관하다. 즉 사드 이전에도 한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규제를 자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과도하다. 2016년 중국에서 10억 뷰를 넘는 드라마는 218편에 달하며, 이 중 한국 드라마는 6편에 불과했다.²³⁾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를 끌자 이를 규제하는 조치를 하고, <태양의 후예>가 성공하자 또 규제를 가하면서

20)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关于进一步落实网上境外影视剧管理有关规定的通知」, 204号, 2014년 9월.

21) <하이드, 지킬, 나>는 요우쿠에 방영이 되기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680만 명이 시청했다.

22) 「韩剧为挽留中国粉丝‘求同步’」, 『新京报网』, 2015년 9월 21일자.

23) 「중국의 ‘한국 콘텐츠 공동제작 제한 지침’에 대한 시사점과 대안」, 『한중콘텐츠연구소』, 2017년 2월 28일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을 보인다. <태양의 후예> 이후 사전 제작이 일상이 되었고, 이영애의 <사임당, 빛의 일기> 역시 사전 제작과 동시 방영 전략을 펼쳤으나, 결국 한한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드라마 부분에는 한외령이 있다면 예능에는 한오령(限娛令), 한진령(限眞令), 한동령(限童令)이 있다.²⁴⁾ 한오령은 중국 위성TV가 매년 수입하는 해외 예능 포맷의 수를 1편으로 제한하는 규제이다. 한진령은 예능 프로그램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인도 예능에 참여하도록 만든 규제이다. 한동령(限童令)은 연예인 자녀가 출연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을 금지하는 규제다. 이는 중국 위성TV 등에서 <무한도전>, <런닝맨>, <복면가왕>, <아빠 어디가> 등을 염두에 두고 규제한 조치들이다. 해외 예능을 규제한다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한진령은 <런닝맨>, <한동령>은 <아빠 어디가> 등이 주요 타깃이었다. 범람하는 한국 예능 전체가 한오령의 대상이었다.²⁵⁾

중국 정부는 <런닝맨(奔跑吧 兄弟)>, <1박 2일(明星家族的2天1夜)>처럼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맹목적으로 뛰어다니는 예능 프로그램은 사회주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고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라며 규제했다. <복면가왕(蒙面歌王)>이나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와 같은 가창경연대회와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나섰다.²⁶⁾ 국내 예능 포맷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의 예능도 함께 규제했다. <아빠 어디가>는 중국에서 <爸爸去哪儿>로 제작되었는데, 중국 방송의 시청률 손익분기점인 1%를 훨씬 넘어 최고 시청률 3.5% 기록하는 대성공을 이뤄냈다. 이후 극장판 영화가 상영되고 시즌 4까지 방송될 만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엄마는 초인(妈妈是超人)>과 같은 아류들이 제작되었다. 하지만 <아빠 어디가>처럼 좋은 방송도 규제에 나섰다. 미성년자가 출연할 경우 돈과 인기를 독차지해 또래 나이의 미성년자에게 박탈감을 안겨 준다며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연예인의 자녀가 출연하는 부분은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져 사회주의 가치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표 2]은 한오령, 한진령, 한동령의 주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24) 한오령은 娱乐 즉 엔터테인먼트, 한진령은 真人秀 즉 리얼리티쇼, 한동령은 儿童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5) 왕쉬에·김연식,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규제에 대한 중국 시청자 태도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7권 3호, 2017. p.76.

26) <런닝맨(奔跑吧兄弟)>은 저장위성TV, <1박 2일(明星家族的2天1夜)>은 쓰촨위성TV, <복면가왕蒙面歌王>은 장쑤위성TV, <나는 가수다(我是歌手)>은 후난위성TV에 포맷을 수출했는데, 이들 위성TV들은 중국 최고 그룹에 속한다.

[표 2] 한오령, 한진령, 한동령의 주요 내용²⁷⁾

규정/기간	법령명	주요 내용
한오령 2013년 10월	TV 위성종합채널 프로그램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2014年电视上星综合 频道节目编排和备案工作的通知 - 广发[2013]68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위성TV가 매년 수입하는 해외 예능 포맷의 수를 1편으로 제한하는 규제 - 위성종합채널은 매년 편성하는 신규 해외 포맷은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19:30~22:00 시간대에 편성할 수 없다. - 오디션 예능은 엄격히 관리하고 반드시 신고한다. - 가창경연대회 프로그램은 1편만 편성한다. - 해외 포맷 도입 프로그램은 2개월 전에 사전 등록한다.
한진령 2015년 7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真人秀节目管理的通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능 프로그램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인도 예능에 참여하도록 만든 규제 - 사회질서와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전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 연예인의 과도한 출연을 지양하고, 일반인 출연자들을 출연시키도록 한다. - 과도한 오락성과 저속한 콘텐츠는 지양한다.
한동령 2016년 6월	TV 예능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关于进一步加强电视上星综合频 道节目管理的通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 자녀가 출연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을 금지하는 규제 - 미성년자의 리얼 버라이어티 출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방송할 경우 반드시 심사를 받는다. - 연예인 자녀는 출연하지 않으며, 방송을 불허한다. - 인기 있는 미성년자 출연 프로그램은 개선이 필요하며, 낮 시간대만 방송이 가능하다.

출처: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http://www.sarft.gov.cn>)

앞서 논의한 「방송 프로그램 자주적 창작 업무 추진 강화에 관한 통지」는 드라마는 물론 예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예능 포맷 수입을 제한이 가속화되고 있고, 문화산업 전반에 자국 문화산업 보호주의를 노골화하면서 한국 방송사는 저작권 합작이나 공동 제작을 통해 중국 진출을 모색했으나, 이조차도 한한령에 막혀 대책이 시급하다. SBS는 한한령에 의해 피해 규모를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한령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전성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체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중국 정부는 중국식 사회주의 창작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자국의 우수한 이야기를 발굴 및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은 물론 해외 콘텐츠의 규제를 가속화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를 틈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27)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2017년 5월 4일 문화산업 관련 5개 규정을 부분적으로 손봤다. 「중의 합작 촬영·제작 영화 관리 규정」, 「방송영화제(전) 및 프로그램 교류 활동 관리 규정」, 「방송영화산업 통계 관리 규정」, 「방송 안전 방영 관리 규정」, 「드라마 내용 관리 규정」 등 5개 규정의 개정을 알리는 「부분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을 공지했다.

예를 들면, ‘다섯 명의 연예인이 15일 동안 해외에 중식당을 차려 중국요리의 ‘장인 정신’을 자랑스럽게 세계에 전한다’는 <중찬청(中餐廳)>이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 봐도 tvN의 <윤식당>의 포맷이 연상된다.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의 탄생>이 Mnet의 <프로듀스 101>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글이 오르내린다. 최근 불거진 <윤식당>이나 <프로듀스 1010> 이전에도 KBS <안녕하세요>, JTBC <히든싱어>,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이 수많은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무단도용돼 방송되었다.

2) 중국 문화산업에는 대한 규제는 없었는가?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이하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인터넷 공간에서 규정한 모든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다. 모두 7장 7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개인정보 판매 금지 2. 인터넷 사기 근절 3.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 4. 기초 정보 설비 보호 5. 중국 내 기초 정보 설비에 위협을 가하는 외국의 개인과 조직 단속 6. 국가 중대 사건 발생 시 정부의 인터넷 통신 통제 등이다. 한중콘텐츠연구소 전문위원 김택규에 따르면 「인터넷안전법」에서 한국 콘텐츠 기업에 의미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접속, 도메인 네임 등록, 전화 설치, 휴대폰 등록 등의 절차를 밟게 하거나 정보, 발표,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와의 협의 체결 혹은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확인 요청 시 반드시 사용자에게 정확한 신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국의 법률은 3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이나 법률이다. 2등급은 국무원의 행정 법규, 3등급은 성(省)급 인민대표대회와 각 부처 또는 위원회가 직권 내에서 제정한 행정 법규를 말한다. 「인터넷안전법」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1등급 법이다. 「인터넷안전법」과 더불어 「영화산업촉진법(电影产业促进法)」은 2016년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영화산업촉진법」은 2017년 3월부터, 「인터넷안전법」은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화산업촉진법」 이전에는 하위법인 「영화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가 있었는데 이번에 격상되었다. 출판의 경우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가 있지만 격상된 법은 아직 없다.

2013년 6월,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위성 종합 채널 드라마 방송 조정 관리 방법(卫视综合频道电视剧播出调控管理办法)」을 발표해 드라마의 총방송량, 범위, 소재, 시기, 시간대 등을 제한했으며, 현실 소재를 격려하며 퓨전사극, 범죄사건, 수입, 합작 드라마를 제한했다.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이미 2011년 퓨전사극 제한령(限古令)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오히려 중국 드라마의 주류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였다. 중국에서 인기있는 드라마는 타입스립을 소재로 한 퓨전역사물이거나 로맨스판타지가 대부분인데, 프레시귀귀(Fresh果果)의 원작 웹소설을 드라마로 한 <화천골(花千骨)>, 장성난(蒋胜男)의 <밀월전(芈月传)>, 하이옌(海宴)의 <랑야방(琅琊榜)>이 대표적이다.²⁸⁾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2018년 1월 사상 가장 엄격한 퓨전사극 제한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정통사극 육성을 위해 제도 마련과 정책지원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당권과 채찍 전략으로 <강희왕조(康熙王朝)>, <옹정왕조(雍正王朝)>, <건륭왕조(乾隆王朝)> 등의 '왕조 시리즈'나 <대진제국(大秦帝国)> 3부곡 및 <한무제(汉武帝)>, <주향공화(走向共和)>, <정관의 치(贞观之治)>, <대명궁사(大明宫词)> 등과 같은 전통사극에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²⁹⁾ 이외에도 청춘물도 사회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위성TV마다 1년에 1편정도 밖에 방송할 수 없고, TV 프로그램에 방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온라인도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는 아예 제작할 수 없고, 프로그램명에 '남신(男神)', '여신(女神)', '아이돌(偶像)' 단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투과남신(战斗吧男神)>은 <아문전투과(我们战斗吧)>으로 프로그램명을 변경했고, <우상래료(偶像来了)>는 <아문래료(我们来了)>, <화양남신(花样男神)>은 <화양남단(花样男团)>으로 바뀌는 등 깨알같이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나 MCN 등 왕홍 등도 규제에 나섰다. SNS를 통해 공급되는 영상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12월 16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웨이보·위챗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关于加强微博、微信等网络社交平台传播视听节目管理的通知)」를 발표했다. 이는 SNS도 드라마나 영화 등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로 따지면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즉, 포털사이트 및 웨이보, 위챗 등 SNS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중국 정부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가상사설망(VPN) 같은 우회로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가상사설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은 6월 1일부터 기체량 250g 이상의 무인기(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시행했다. 바이두도 1일부터 정식으로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웨이보는

28) 이견웅·위군, 「한중 웹소설의 발전 과정과 특징」,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1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7. p.167.

29) 「광전총국, 2018년 사상 가장 엄격한 퓨전사극 제한령 발표예정?」, 『한중콘텐츠연구소』, 2017년 2월 28일자.

2012년 3월에 이미 실명제로 전환했다. 웨이보의 모회사인 시나웨이보(新浪微博)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나웨이보는 2014년 4월 17일 미국 뉴욕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뒤인 2014년 4월 24일 시나웨이보의 온라인 발행과 배포권이 박탈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시나닷컴에 실린 20건의 글과 4편의 비디오가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나닷컴의 신문·잡지·서적·오디오·비디오의 온라인 발행 라이선스를 박탈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발표했다. 또 “시나웨이보가 외설적인 콘텐츠로 약 50만 위안(약 8,000만원)의 매출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되며, 콘텐츠 독자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확인된다”며 이유를 제시했다. 시나웨이보는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광전총국의 처벌에 대해 수긍하는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언뜻 보기에는 중국 정부의 음란물 단속으로 보이지만, 웨이보 등 SNS 규제가 주된 목적이었다. 실제로 독서나 동영상 보기 채널도 폐쇄하고 인기 논단의 비판적인 글도 내렸다. 시나웨이보를 단속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를 비롯해 QQ, 위챗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한한령’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과거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행했던 해외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와 차원이 아니라 한국에 특화된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문화(한류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란 카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류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한국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보복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한류처럼 문화산업은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동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여론전을 통해 파급력까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겐 가장 효율적인 규제 정책인 것이다.³⁰⁾

4. 맺음말

2018년은 한중수교 26주년이다. 앞으로 한중수교 50주년, 한중수교 100주년으로 거듭나고 중국발 리스크도 줄여 나가야 한다. 제2의 사드, 제3의 사드가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문화산업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고 한중관계가 훼손된다면 이번 ‘사드’ 사태는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호혜의 관계라는 수평적 관계일 때 지속 가능한 성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중

30) 권기영,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 『중국문화연구』, 2017, p.29.

국은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 다른 지역과 대체할 수 없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때 한중 문화산업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일정한 매뉴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1단계는 언론을 통한 반한 감정을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 달 동안 사드 관련 보도와 논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단계는 인적, 문화교류의 제한이다.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 제한, 유력 인사들의 한국 방문 및 회의 연기와 불허, 지방자치단체 간 행사 일방적인 취소 및 무기한 연기, 대화 중단, 학술회의 등도 선별적으로 관리했다. 3단계는 경제적 조치로 비관세 장벽 강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지연 혹은 거부(2017년 10월 만료였으나 연장했다.), 한국기업에 대한 직접적 압박여론의 동원 등이다.³¹⁾

하지만 2017년 미국과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의 전술 변경이 불가피했다. 미국은 보수정권으로 한국은 진보정권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 풍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고수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권이 2기 체제로 안정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해 동북아 갈등을 높일 이유가 없다.

중국의 과도한 한국 개입은 역풍을 맞아 ‘중국위협론’이 고조되고 안보리스크가 경제리스크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중국의 지나친 압박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역효과가 있고, 한국이 미일동맹과 손을 잡거나 하위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져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균형이 깨지게 된다. 특히 러시아에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보복³²⁾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효과도 점차 사라진다. 단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적 문화적 규제와 경제 보복이 성과가 있으나 지속될 경우 중국과 한국 모두 큰 타격을 받으며, 한국의 인프라가 일본처럼 동남아시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서 시장경제지위(MES)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나친 한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구 국가의 역공을 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³³⁾

이를 위해 한국 문화산업 학계와 산업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한중 관계는 깊은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31) 이희옥, 「한중관계의 주요쟁점 - 사드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2017, p.149.

32) 경제보복(economic retaliation)은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과 다른 개념이다. 경제보복은 국제법의 테두리에서 국제기구 등 제재 권한을 받고 집행한다면, 경제보복은 일개 국가의 일방적인 경제적인 강제 조치로 국제법에 어긋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한령은 경제제재가 아닌 경제보복이며, 이를 잘 간파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에 관한 문서를 남기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최승환,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3호, 2017, p.170에서 재인용).

33) 이희옥, 앞의 글, pp.148~150.

필요하다. 또한 한한령 이전으로 100%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어느 누구도 한한령 이후 한중 문화산업의 방향을 예측하거나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한한령이라는 굴레를 통해 한중 문화교류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한령 이전의 70~80%만 복원되더라도 성공적이다. 예전의 한국의 이미지가 신선하고 맑고 청정한 느낌이었다면 이제 북한과 오버랩되면서 한반도 전체가 문제적 지역으로 낙인 찍혀 버렸다.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역할도 ‘문화산업이’ 지닌 숙명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한령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예전의 관성과 습관을 버리고 한중 관계의 지각변동을 통렬히 반성하고 새로운 문화산업의 역할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상호호혜 관계를 증시하고 쌍방향 교류를 통한 ‘원원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콘텐츠 수출만 관심이 있고 중국 콘텐츠에는 관심이 적다. 또한, 중국의 시장과 자본에 관심이 있고, 정작 중요한 ‘사람’에는 관심을 갖고 투자하지 않는다. 사람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식 판시도 맺어지지 않고, 비즈니스도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 드라마와 K-POP, 게임 등은 중국에서 소구력이 강한 한국 콘텐츠다. 한한령 기간 동안 드라마 <도깨비>와 <푸른바다의 전설>이 높은 인기를 끌었고, 영화 <부산행>과 <신과 함께>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문제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한령을 통한 규제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국가 주도가 아닌 인민들의 뜻에 따라 거부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한한령 기간 동안 양지가 아닌 음지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유통되고, 불법으로 포맷을 베꼈다는 것은 아직 중국 문화산업 수준이 한국과 겨룰만한 실력이 없다는 반증이다.

셋째, 중국 IP산업을 공략해야 한다. 콘텐츠 저작권이나 포맷을 수출하는 기존의 전략을 좀 더 정교화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콘텐츠 수출이나 포맷은 한계가 있고 사드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면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 한국의 우수한 IP를 육성해서 중국의 구매력을 높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은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IP산업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정통적인 장르인 무협, 판타지, 타임워프, 신화와 설화 등은 식상하고 흥미를 잃어 버렸다. 또한, 중국 정부는 빼앗어진 시장을 바로잡고자 규제에 나섰고, 과도한 경쟁으로 아류와 베껴 쓰기가 일반화돼 독창적인 작품이 많지 않은 게 중국 웹소설 시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의 웹소설 전문플랫폼이나 웹소설 작가가 직접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 작품은 단순히 번역해서 플랫폼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플랫폼이 IP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 인민의 코드를 맞추고 사드 영향을 우회하기 위해 인물이나 지명 등을 중국식으로 수정하는 등 한국콘텐츠에 중국식 옷을 입혀 판매할 수 있고, 처음부터 중국 독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개발하고 창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이미 곳곳에서 전개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국 동화대학교에 우수근 교수는 ‘스마트한 돌고래론’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중견국가로서 우리는 스마트한 돌고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수근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고 지지한다. 한반도가 비핵화되지 않고 미국의 호전성과 중국의 부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제2의 사드와 같은 중국위협론이나 리스크는 늘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 문화의 침투와 확산이 중국 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꾸준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 문화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외국 문화의 중국 내 유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산업도 중국 공산당과 하나의 중국에 저해되는 경우 과감하게 규제하고 억제한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일관된 문화정책의 핵심 방향을 직시하고, 낙관적이고 안일한 대책을 버리고 다각적인 문제 해결안을 가져야 한다. 여러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도 거시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 문제는 중국 안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게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2018년 그래서 중요한 해이다.

참고문헌

- 김희정,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과제」, 『이슈와 쟁점』, 제1264호, 2017.
- 권기영,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 『중국문화연구』, 제37호, 2017.
- 서창배, 「중국의 WTO 통상분쟁 사례 연구」, 『중국법연구』 제29집, 2017.
- 손영풍·김익기, 「중국사회의 범(泛)정치화 현상과 ‘한한령」, 『문화콘텐츠연구』, 제10호, 2017.
- 유일신, 「시진핑의 정치: 한류 문화 갈등」, 『국제언어문학』, 제35호, 2016.
- 이건웅, 「사드 이후의 한중 문화산업」, 『성균차이나브리프』, 제5권 제3호(통권 44호), 2017.
- 이건웅·위균, 「한중 웹소설의 발전 과정과 특징」,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1호, 2017.
- 이희옥, 「한중관계의 주요쟁점: 사드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2017.
- 왕쉬엔·김연식,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규제에 대한 중국 시청자 태도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7권 3호, 2017.
- 외교부, 『베트남 개황』, 2011.
- 최승환,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법학회 논총』, 제62권 3호, 2017.
- KOTRA, 「2017 중국 진출전략」, 2016.
- KOTRA, 「2018 권역별 진출전략 : 중국」, 2017.
- KOTRA,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2017.
- KOTRA,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ICT 융합 전략과 시사점」, 2016.
- 刘超杰, 「国际政治中的制裁研究」(박사학위논문), 中共中央党校, 2006.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关于进一步落实网上境外影视剧管理有关规定的通知」, 204号, 2014년 9월.

<언론보도>

- 「결국 해넘긴 중국 롯데마트 매각...협상 전망도 '오리무중」, 『연합뉴스』, 2018년 1월 3일자.
- 「광전중국, 2018년 사상 가장 엄격한 퓨전사극 제한령 발표예정?」, 『한중콘텐츠연구소』, 2017년 2월 28일자.
- 「베트남 사례로 배우는 통상 분쟁 대응법」,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년 5월 23일자.
- 「베트남, 무역·경제 분야 중국 의존도 줄여」, 『산업일보』, 2017년 3월 28일자.
- 「센카쿠 국유화 반일감정 확산, 수출 감소·여우커 급감」, 『산업일보』, 2017년 3월 19일자.
- 「유일호 ‘中 사드보복 물증 없어...현명하게 메시지 전달할 것」, 『연합뉴스』, 2017년 3월 19일자.
- 「일본, 해외시장 개척과 WTO 제소 통해 중국 패소 이끌어 내」, 『산업일보』, 2017년 3월 14일자.

- 「정상회담 속도 냈던 韓, 中 협상술에 말했다」, 『시사저널』, 2017년 12월 18일자.
- 「중국 “석유 채굴 강행 땀 전쟁” ... 필리핀 “전쟁 위협 유엔 제소」, 『중앙일보』, 2017년 5월 21일자.
- 「중국과 오래된 미래 2. 헬싱키의 함정」, 『슬로우뉴스』, 2017년 12월 11일자.
- 「중국의 ‘한국 콘텐츠 공동제작 제한 지침’에 대한 시사점과 대안」, 『한중콘텐츠연구소』, 2017년 2월 28일자.
- 「프랑스 中대사관 관리, 성화 봉송 앞두고 망언」, 『SOH희망지성』, 2008년 4월 3일자.
- 「프랑스계 대형마트 까르푸 겨냥한 불매 운동 발발」, 『산업일보』, 2017년 3월 23일자.
- 「필리핀 두테르테, 미국과 동맹 거론하며 "사랑해요, 시진핑"」, 『연합뉴스』, 2018.04.10.
- 「한한령’ 들어본적 없다, 다만... 中 애매모호한 태도」, 『조이뉴스』, 2016년 11월 22일자.
- 「中 사드 보복에 여론전으로 맞서라」, 『파이낸셜뉴스』, 2017년 3월 24일자.
- 「限外令”下, 美剧应该怎么看?」, 『新京报网』, 2015년 1월 22일자.
- 「韩剧为挽留中国粉丝‘求同步」, 『新京报网』, 2015년 9월 21일자.
- 「中共中央印发 ‘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新华网』, 2018년 3월 21일자.
- 「Mike凭 ‘美味奇缘’等走红, ‘限韩令’后泰星接棒中国市场?」, 『娱乐资本论』, 2017년 10월 2일자.

【Abstract】

China's Ban on Korean Contents and Regulation on Cultural Industry

Gunwoong Lee (nayagun@hanmail.net)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ban on Korean contents, the atmosphere of Korean and Chinese cultural industry has completely changed. The ban on Korean contents brought on b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left lessons of reflection and awakening in Korea and China. This research analyzed synchronically regulation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taking the opportunity of ban on Korean contents. Was there any regulation on Korean cultural industry before the ban on Korean Culture in Korea from now?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flow and direction of policy and regulatory measure in cultural industry of Chinese government before and after the ban on Korean contents in China surrounding research theme of 'Was there no regulation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In conclusion, Chinese government is strongly regulating overall cultural industry. It has regulated all the cultural contents of overseas as well as Korean cultural contents and its own cultural industry is more strictly regulated. Its point is in that Chinese government is effectively manage and supervise cultural industry. This basis is not limited to cultural industry but is Chinese government's policy and orientation. As shown in 19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October, 2017 and Double Congress in March, 2018. Xi Jin-ping government cracks down on the internal through anti-corruption action and is making China strong by establishing Sole Ruling System. Regulation on journal and media integrating newspaper and publication into Central Propaganda Department has been strengthened and in particular legal system to regulate all the company home and abroad for ICT area based on Interne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Internet Safety Law>.

Taking an opportunity of THAAD, China put the brake on spreading Korean cultural industry. Whenever political issues has occurred on the Korean Peninsula, cultural industry surrounding Korean Wave is highly likely to be hit first. After learning lessons from this ban on Korean contents, we need to establish action while strengthening essence and durability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That is the lesson of the ban on Korean cultural contents.

Key Words: Ban on Korean Contents(限韓令), Cultural Industry, Chinese Threat Theory, IP Industry, Internet Safety Law